

성역할고정관념과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신성자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ng-Ja Shin(sjshin@knu.ac.kr)

요약

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결혼인식, 성역할고정관념, 혼외관계 수용성, 성적외도 실행의도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성별차이를 재확인하였다. 둘째, 남성의 경우, 성역할고정관념, 개방결혼인식, 혼외관계수용성은 성적외도실행의도에 각각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고, 혼외관계수용성은 결혼개방성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성역할고정관념은 혼외관계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여성의 경우 성역할고정관념,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 혼외관계수용성은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각각 직접적인 효과를 미쳤고, 혼외관계 수용성은 결혼개방성인식이 성적 외도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성역할고정관념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적 외도실행의도 및 관련요인에 대한 성별차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면서, 함의를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혼외관계 | 성적 외도 | 개방결혼 | 성역할고정관념 | 젠더 |

Abstract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men show higher level of perceiving open marriage, sex-rol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than that of women. Second, the effects of men's perception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and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have direct effects on their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shows the mediation effect on the path between that of open marriage and extra-marital sex among men. However, men's perception of sex-role does not affect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Lastly, women's perception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and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directly influence the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each, including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ing extra-marital relationship between that of open marriage and extra-marital sex which are similar to the men's trend. Women's perception of sex-role show the direc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unlike man's trend. Therefore, the fact demonstrates that the effect of perceiving of sex-role on the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i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 keyword : | Extra-marital Relationship | Extra-marital Sex | Open Marriage | Perception of Sex-role | Gender |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접수일자 : 2017년 0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10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10일

교신저자 : 신성자, e-mail : sjshin@k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간통죄(형법241조)에 대한 다섯 차례의 판결을 통해서, 마침내 위헌을 선고하게 되었다[1]. 간통죄 폐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추세이기 하지만[2],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배경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녀가 평등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부각된 간통죄 폐지배경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3]. 간통죄 폐지는, 그동안 기혼부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이 폐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기혼부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인식 및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외 성적 외도, 즉, 혼외 성관계 당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4]. 간통죄 폐지가 기혼부부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성규범은 일부일처제를 가정하는 성적 배타성에 근거하므로,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이지만, 비공식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예: 혼외 성관계, 성매매, 성폭력 등)은 소위 일탈적인 성으로 비도덕적으로 여기고 법적으로도 처벌되었다[5].

사실 우리사회는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외 성관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간통죄를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오래 동안 존치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혼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선행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4][6][7]. 기혼부부의 혼외 성적 외도 또는 혼외 성관계 경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혼외 성관계가 우리사회 성문화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으로[5], 기혼 부부의 혼외 성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사회가 대처해나가야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성행동을 규제해온 성규범과 개인들의 성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기혼부부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혼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해석에 필요한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합인회는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이중 성윤리를 받아들였던 인식이 최근 들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4]. 비록 여성에게 배타적으로 강조되는 순결이데올로기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성개방화 물결은 우리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비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면서, 가정 밖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이 증가되어 혼외 관계(extra - marital relationship)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5][8][9].

우리사회는 결혼제도 안에서의 성(性)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규정하는 이중적 성규범이 강조되고 있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혼외 관계는 부도덕하다는 인식 대신, 결혼관계와 무관하게 사랑하는 사이의 성행위는 도덕적이고, 착취하는 관계의 성관계(예: 결혼강간)가 오히려 부도덕하다는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기혼부부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Berscheid와 Campbell는 사회조건의 변화가 사람들이 이성간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배타적인 성관계에서 진보적인(개방적인) 성관계 특성의 연속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5][8].

결혼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혼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5][10][11].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개방 결혼이 혼외 성관계를 정당화시키는 방편일 뿐 이라고 주장하지만, 진보적 학자들은 혼외관계가 개인의 성장과 결혼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2]. 결혼 및 혼외성행동에 대한 상당히 다른 해석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소수자(minority)이지만, 공개적으로 개방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방결혼을 진보적인 한 결혼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13]. 비록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디지만, 성위계 및 성규범이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진보적 결혼 형태로 간주되는 개방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혼외 관계 수용성 및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는 것은 도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식과 성행위 간의 높은 상관성 뿐 만 아니라, 혼외성에 대한 인식과 혼외성 행동에는 뚜렷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14], 앞서 논의한 성역할 고정관념,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 혼외 관계 수용성 등의 성인식이 실제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선행연구

1) 혼외 관계 개념

통상적인 ‘혼외 관계’에 대한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15].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 간에도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개념들을 소개해보면,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16][17],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성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18][19],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유무를 떠나,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감정적 교류 또는 성적 관련을 맺는 것”[14][20]등이다. 혼외 관계의 개념을 성적 부정행위(sexual infidelity)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부정행위(emotional infidelity)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가진다. Harley는 정서적인 혼외관계와 성적 외도와와의 높은 관련성을 지적하면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던가,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혼외 관계(extra-marital relationship)로 보아야 한다고 피력하였다[21].

Green과 Sabini는 배우자의 성적 부정행위(성적 외도)에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분노하지만, 정서적 부정(정서적 외도)으로 인한 상처가 성적 외도 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22]. ‘혼외관계’와 함께 통상 흔히 사용하는 ‘외도’는 성적 부정행위

를 일컫는 용어이지만, 정서적 부정행위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남성은 배우자의 성적 외도에 더 질투심을 느끼고, 여성은 오히려 배우자의 정서적 외도에 더 질투심과 상처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3]. 따라서 혼외 관계연구에서, 혼외관계 범위는, 혼외 ‘성적 외도’(혼외 성관계)뿐 만 아니라, 정서적 외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사회화(sex-role soci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정서, 인지 및 행동을 조형(shaping)하는 강력한 사회적 기제이다[24].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들에게는 주장적, 적극적, 공격적인 특성 등을 장려하고, 여성들에게는 돌봄(caring)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남성과 반대로 수동적인 특성 등을 장려한다. 남녀의 성관계 및 섹슈얼리티(sexuality)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양식의 하나로, 성불평등을 반영하는 기제이자 동시에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4][25][26].

인간의 성적 충동 및 성행위를 위한 생물학적 잠재력은 타고 났지만, 그러한 잠재력이 성행동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주장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27][28].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성충동(drive)을 성행위로 연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정교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27][28].

개인의 성인식 및 성행위는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24][29]. 따라서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혼외성 인식 및 행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선행요인이 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혼외관계 수용성’(매개변수) 및 ‘성적 외도 실행의도’(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할 수 있다.

3)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Weis와 Slosnerick는 혼외관계에 대하여 양극단적으

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연속체로 구성된 개념으로 설명한다[5][10]. 사회각본의 관점에서 볼 때, 혼외 관계를 수용하는 사람은 결혼생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혼외 관계를 결혼의 불만이나 사랑의 손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5][10]. 개방 결혼은 부부간에 혼외 성행동을 상호인정하고 성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매우 진보적 형태의 결혼이라 할 수 있다[12][30]. 선행연구는 성적 가치관과 성적인 혼외관계 간에는 깊은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14][31]. 따라서 개방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혼외 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은 ‘혼외관계 수용성’ 및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

4) 성인식 및 성행동의 성별차이

선행연구에서 밝힌 혼외 성경험 및 혼외 성허용 등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gender) 간의 뚜렷한 차이는, 성적 위계 및 차별적인 성규범의 영향을 반증해주고 있다[14].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혼외 성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혼외 관계 허용도는 남성의 혼외 관계에서는 79.5%, 여성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는 52.8%로 나타났다. 혼외 성 경험 없이 남성의 경우, 혼외 관계 허용도는 남성의 혼외 관계에서는 44%, 여성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는 24%가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외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의 경우에 혼외 관계 허용 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는 81.8%, 여성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는 85.8%가 허용적이라고 응답했다. 혼외 성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남성의 혼외 관계에는 35.1%, 여성의 혼외 관계에는 22.2%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혼외 성경험 및 혼외성 허용에 대한 인식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혼외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 실제로 혼외 성관계 성경험 또한 높다는 사실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일관성 있게 보고된 바 있다[4][10][14-16][32-35]. 따라서 ‘혼외 관계 수용성’은 직·간접적으로 혼외 ‘성적 외도 실행의도’ 가능성을 증가시

킬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부가하여, 혼외성에 대한 인식과 혼외 성행동에는 성별 간에 뚜렷한 성별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혼외 성인식 및 성행위 관련요인 탐색연구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개방 결혼’, 그리고 ‘혼외 관계 수용성’ 등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효과는 ‘성별’특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3.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실증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어 개척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첫째, 매우 비밀스럽고, 사적이고 이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가장 진보적인 결혼형태로 분류되고 있는[13]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혼외 성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혼외 관계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성별특성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적 외도실행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술한 주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함에 있어서, 성별(gender)특성을 중요한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를 단순히 하나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14]의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본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각각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파악하고, 성적, 정서적 혼외 관계를 포괄하는 혼외 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적인지, 즉,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가 젠더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의해, 어떻게 그 양상이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근거로, 실천적 함의(implications)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들(paths)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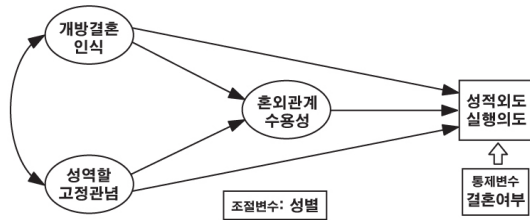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응답자들의 '성적 외도 실행의도', '혼외 관계 수용성',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은 어느 정도이며,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성역할 고정관념'과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은,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각각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3. '성역할 고정관념'과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은, 각각 '혼외 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4. '혼외 관계 수용성'은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가?
5.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6.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7.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8.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2.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방법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인터넷 서베이(survey) 업체의 유료 패널 중에, 본 연구자 및 공동 연구원(2명)이 작성한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며, 특정 지역성이 아닌 전국단위에서 얻은 자료이다. 조사대상자(655)는 남성이 329명이고 여성 326명이다. 기혼자가 402명이고 미혼(싱글포함)이 253명이다. 연령대는 30대(308명, 4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184명, 28.1%)가 많았다. 20대(85명)는 13.3%, 50대 이상(76명)은 약 11.6% 순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 수는 655개이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인: '성적 외도 실행의도'

종속변수인 '성적외도 실행의도' 척도의 내용은 Atwater의 연구에서 밝힌 내용, 즉, "혼외 성에 대해 상당기간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혼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태도변인"라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36][37]. 단항 문항의 척도로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척도 문항 내용은 "나는 혼외 성관계를 행하는 것을 실제로 상당기간 동안 생각하고 있다"이다.

2) 독립변인

① '개방 결혼인식'

'개방 결혼인식'척도는 개방 결혼(open marriage)에 대해 조사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 즉, 부부 간에 상호 혼외 성관계를 용인하는 개방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척도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Thomson 외이 부부간의 혼외관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였다[37]. 척도문항 내용은 부부간에 어떤 자각 및 규제(sanction)도 없이 행하는 혼외 성관계에 대한 인정 정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혼외 성관계에 대한 인정정도, 완전히 자유를 인정하는 형태의 혼외 성관계 등에 대한 인정 정도 등의 내

용들을 포함시켰다. 세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1=“아주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75이다.

②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Feild가 소개한 척도를 국내에서 번안한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38][39]. 4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는 .697이다.

3) 매개변인: ‘혼외 관계 수용성’

혼외 관계 수용성 척도는 자신이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가 아닌 다른 이성과 혼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수용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 문항 내용은 Thompson 외의 연구에서 제시한 세 범주의 혼외 관계 유형, 즉, 즉, 정서적인 것(사랑), 성적인 것(성행위), 그리고 정서적인 것과 성적인 것을 함께 내포한 혼외 관계 유형 등을 토대로, 척도 문항(3문항)을 구성하였다[37].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혼외 관계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신뢰도는 .846이다.

4) 조절변인: ‘성별(gender)’

조절변수인, ‘성별’은 이항 변수(0=남성, 1=여성)이다

5) 통제변수: ‘결혼 여부’

‘결혼 여부’는 이항 변수(0=미혼 및 싱글, 1=기혼)이다.

4. 분석방법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SEM)을 하였다. 통계분석 패키지는 Stata 및 AMOS 19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 적합지수(RMSEA)와 상대적 적합지수(CFI, TLI)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최근 국내연구[40][41]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Shrout와 Bolger가 제시한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 ed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였다[42]. 조절효과 검증은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성역할 고정관념’, ‘개방 결혼인식’, ‘혼외 관계 수용성’, ‘성적 외도 실행의도’)인 주요 척도들의 평균값은 [표 1]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표 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척도 (5점 척도)	평균-M(표준편차-SD)			t값
	두 집단 비교			
	전체	남성	여성	
개방 결혼 인식	2.0646 (.9078)	2.2634 (.9115)	1.8640 (.8599)	5.768
성역할 고정관념	2.7630 (.8558)	3.0327 (.7943)	2.4908 (.8302)	8.536
혼외 관계 수용성	2.1842 (1.0659)	2.4458 (1.0719)	1.9202 (.9939)	6.508
성적 외도 실행의도	2.2900 (1.1070)	2.4700 (1.0820)	2.1100 (1.1030)	4.297

각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모두 중간 수준(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의 평균값(M=2.763)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성적외도 실행의도’(M=2.290), ‘혼외관계 수용성’ (M= 2.1843), ‘개방 결혼인식’(M= 2.0646) 척도 등은 모두 2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 각 척도의 평균값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1]. ‘성적 외도 실행의도’, ‘혼외 관계 수용성’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등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척도점수를 보였다. 여성보다 남성들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 및 ‘혼외 관계 수용성’ 수준이 높고, ‘개방 결혼’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용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연구문제 1).

표 2. 주요변수들의 빈도

주요척도	전체(655명)	
	점수	명수(%)
개방 결혼인식 (1-5점 척도)	1점이하	148명(22.6%)
	2점이하	243명(37.1%)
	3점이하	173명(26.4%)
	4점이하	79명(12.1%)
	5점이하	12명(1.8%)
성역할 고정관념 (1-5점 척도)	1점이하	14명(2.1%)
	2점이하	144명(22.0%)
	3점이하	267명(40.8%)
	4점이하	198명(30.2%)
	5점이하	32명(4.9%)
혼외 관계 수용성 (1-5점 척도)	1점이하	165명(25.2%)
	2점이하	205명(31.3%)
	3점이하	149명(22.7%)
	4점이하	113명(17.3%)
	5점이하	23명(3.5%)
성역외도 실행의도 (1-5점 척도)	1점이하	198명(30.2%)
	2점이하	186명(28.4%)
	3점이하	170명(26.0%)
	4점이하	84명(12.8%)
	5점이하	17명(2.6%)

추가로 빈도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들 중에 약 15.4%가 '성적 외도 실행의도'를 인정하였고, 약 20.8%가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약 13.9%는 '개방결혼'을 용인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적지 않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혼외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 중에 약 35.1%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약 24.1%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40.8%)는 불분명한 입장(척도점수 3점)을 보여주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경향은 전통적인 성역할이 남성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표 2] 연구문제 1).

3.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각 측정지표들(indicators)의 왜도는 -.002-1.035로 절대값 2를 넘지 않았다. 첨도값의 범위도 -1.037-.226으로 절대값 7를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된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473 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chi^2=166.562$, $df=32$, $p.000$, $TLI=.912$, $CFI=.937$, $RMSEA=.080$)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개별 측정항목의 구성이 타당하고, 주요 척도들의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가 인정된다([표 3]).

표 3.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N=655명)

잠재 변인	측정변인 (indicators)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P	SMC
개방 결혼 인식	지각 규제업은 혼외성관계	.662	1.000				.439
	지식 정보공유 혼외관계 인정	.783	1.375	.092	14.903	***	.613
	자유로운 혼외성 관계 인정	.768	1.258	.085	14.836	***	.590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1	.662	1.000				.438
	성역할 2	.659	.978	.088	11.050	***	.434
	성역할 3	.521	.749	.077	9.783	***	.271
	성역할 4	.585	.916	.087	10.544	***	.342
혼외 관계 수용성	정서적 외도형 수용정도	.700	1.000				.490
	성적 외도형 수용정도	.884	1.272	.066	19.192	***	.781
	성적,정서적 외도형 수용정도	.837	1.148	.061	18.910	***	.701

***p<.001, **p<.01, *p<.05

5. 원모형

중속변수인 '성적 외도 실행의도' 결혼여부에 의한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제변수(결혼여부)를 통제된 후에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chi^2=236.748$, $df=49$, $p.000$, $TLI=.892$, $CFI=.920$, $RMSEA=.077$)수용 가능한 범위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 전의 모형의 적합도($\chi^2=186.144$, $df=39$, $p.000$, $TLI=.910$, $CFI=.936$, $RMSEA=.076$)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4].

표 4. 원모형 경로분석 (N=655)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개방 결혼인식 → 혼외 관계 수용성	.550	.699	.068	10.205***
성역할 고정관념 → 혼외 관계 수용성	.175	.192	.050	3.821***
혼외 관계 수용성 → 성적외도 실행의도	.345	.443	.067	6.651***
개방 결혼인식 → 성적외도 실행의도	.172	.281	.084	3.351***
성역할 고정관념 → 성적외도 실행의도	.111	.157	.061	2.594**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신뢰구간	
개방 결혼인식 →(혼외관계수용성) →성적외도실행의도	.190	.309	Lo: .126 Hi: .258	
성역할 고정관념 →(혼외관계수용성) →성적외도실행의도	.060	.085	Lo: .025 Hi: .102	
모형의 적합도	$\chi^2=236.748$, $df=49$, $p.000$, $TLI=.892$, $CFI=.920$, $RMSEA=.077$			

***p<.001, **p<.01, *p<.05

본 연구모형(그림 1)에서 설정한 5개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할 뿐 만 아니라, ‘개방 결혼인식→(혼외 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 ‘혼외 관계 수용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2, 3, 4). 그리고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도 입증되었다(표 4, 연구문제 5, 6).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별(gender)에 따른 각 경로의 조절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원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6. 측정동일성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접경로 및 간접경로가 ‘성별’에 의해서 어떻게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조절효과 검증에 비중을 둔 연구이다.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별(조절변수)에 의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간의 카이제곱차이($\Delta \chi^2$)가 8.899로, 자유도차이(Δdf)10일 때, 임계치 18.31보다 작아서, 다집단 분석의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었다[표 5].

표 5.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기저모형	295.057	98	.000	.878	.909	.055
측정동일성	303.956	108	.000	.890	.910	.053

7. 다집단 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

성별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와 [표 7]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앞서 제시한 원모형의 적합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1) 남성집단

남성 집단의 모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성적 외도 실행의도’(110**)경로, ‘개방 결혼인식→성적 외도 실행의도’(173***)경로, 이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연구문제 2). 즉, 남성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질수록, 혹은 개방 결혼을 더 용인 할수록, 성적 외도를 실제로 실행할 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 결혼인식→혼외 관계 수용성’(543***)경로도 유의하여, 남성들이 개방 결혼을 용인할수록, 혼외 관계를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3). ‘혼외 관계 수용성→성적외도 실행의도’(364***)경로도 유의하였다(연구문제 4). 이는 혼외 관계를 수용할수록 실제로 성적 외도를 실행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성인식과 성행위 간에 높은 상관성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5][14][34][35]. ‘성역할 고정관념→혼외관계 수용성’(131)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았다(연구문제 3). 남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혼외 관계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원모형 분석[표 4]에서는 이 경로(175***)가 유의하

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따라서 성별 조절효과를 간과한 상태에서의 분석이 가지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고, 성별 조절효과를 고려한 분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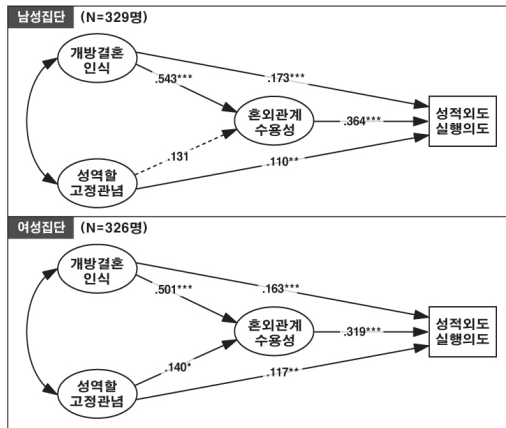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도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개방 결혼인식→(혼외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 ‘혼외 관계 수용성’은 유의한 매개효과(.198; 하한값 .134, 상한값 .285)를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표 6. 남성집단 경로분석 (N=329)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개방 결혼인식→ 혼외 관계 수용성	.543	.769	.102	7.560***
성역할 고정관념→ 혼외 관계 수용성	.131	.161	.084	1.925
혼외 관계수용성→ 성적외도 실행의도	.364	.430	.063	6.855***
개방 결혼인식→ 성적외도실행의도	.173	.280	.087	3.331***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외도실행의도	.110	.160	.062	2.582**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신뢰구간	
개방 결혼인식 →(혼외관계수용성) →성적외도 실행의도	.198	.330	Lo: .134 Hi: .285 (유의함)	
성역할 고정관념 →(혼외관계수용성) →성적외도실행의도	.048	.069	Lo: -.002 Hi: .114 (유의하지 않음)	
모형의 적합도	$\chi^2 = 303.956, df=108, p.000,$ TLI= .890, CFI= .910, RMSEA=.053			

***p<.001, **p<.01, *p<.05

즉, 개방 결혼인식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직접효과는 혼외관계 수용성을 매개(mediation)로 하여 그 효과가 한층 더 증폭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성역할 고정관념→(혼외관계 수용성)→성적외도 실행의도’ 경로의 매개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다.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성적외도 실행의도’ 경로가 원모형에서는 유의하였던 것과는 비교된다.

2) 여성집단

여성 집단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성적 외도 실행의도’(.117**)경로, ‘개방 결혼인식→성적 외도 실행의도’(.163***)경로, 모두 유의하였다(연구문제 2). 그리고 ‘개방 결혼인식→혼외 관계 수용성’(.501***) 경로와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140*)경로, 이 두 경로 유의하였다(연구문제 3). 즉,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혹은, 개방 결혼을 용인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각각 혼외 관계 수용수준도 증가하고, 성적 외도를 실제로 실행할 의도도 각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140*)경로의 경우는,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여 대조된다. 여성 집단에서도 ‘혼외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319***)경로는 유의하였다(연구문제 4).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 집단에서도 ‘개방 결혼인식→(혼외 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160; 하한값 .101, 상한값 .243)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8).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 효과는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연구문제 7). 이 경로는 앞서 남성 집단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남성 집단의 경우에는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 경로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성적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의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혼

외관계 수용성’ 경로 그리고 ‘혼외성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각각의 경로는 유의하였지만,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성적 외도 실행의도’ 경로에서 ‘혼외 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표 7 연구문제 7).

표 7. 여성집단 경로분석 (N=326)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개방 결혼인식 → 혼외 관계 수용성	.501	.659	.091	7.251***
성역할 고정관념 → 혼외 관계 수용성	.140	.143	.066	2.149*
혼외관계 수용성 → 성적외도 실행의도	.319	.430	.063	6.855***
개방 결혼인식 → 성적외도 실행의도	.163	.289	.087	3.331***
성역할 고정관념 → 성적외도 실행의도	.117	.160	.062	2.582**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추정치	신뢰구간	
개방 결혼인식 → (혼외 관계수용성) → 성적외도 실행의도	.160	.283	Lo: .101 Hi: .243 (유의함)	
성역할 고정관념 → (혼외 관계수용성) → 성적외도 실행의도	.045	.061	Lo: -.006 Hi: .231 (유의하지 않음)	
모형의 적합도	$\chi^2 = 303.956, df=108, p.000,$ TLI= .890, CFI= .910, RMSEA=.053			

***p<.001, **p<.01, *p<.05

연구모형이 포함된 직접경로(5개) 및 간접경로(2개)를 토대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 경로에서 여성 집단은 유의하였지만, 남성 집단은 유의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연구문제 8).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간접효과 및 조절효과 등의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응답자들은 성적 외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성적외도 실행의도), 개방 결혼을 용인하는 정도

(개방 결혼인식), 배우자 외의 이성과 자신의 혼외 성적 관계 또는 정서적 관계(사랑)를 포함하는 혼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혼외관계 수용성’),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등에서, 여성 응답자들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은 척도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외 성 인식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와 부합된다[14]. 본 연구 분석 결과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더 지키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혼외 관계에 대해 훨씬 더 허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혼외 관계연구에 있어서, 성별의 특성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 방법론적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개방 결혼을 용인할수록, 혹은 혼외 관계 수용수준이 높을수록, 성적 외도를 실제로 실행할 의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혼외 관계 수용성은,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성적 외도 실행의도는 실제 외도경험과는 구별되지만, 혼외 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넘어, 실제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혼외 성적 외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결혼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개방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대한 평가는, 각각 개인의 성적 외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혼외 성적 외도 예방 및 건강한 부부 성문화 정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개방 결혼에 대한 토론을 소집단 단위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에 대한 오해(myths) 및 무지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인, 교육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남성일수록, 성적외도 실행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강조하는 남성적 특성(예:적극성, 주장성, 공격성 등)이 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혼외 관계 수용성 또는 성적외도 실행의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특성이 상반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여성이 더 보수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여성이 혼외관계 및 혼외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하기 쉽다.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닌 여성일수록, 성적 외도 실행의도 뿐 만 아니라, 혼외관계 수용성 수준도 더 높은 사실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그러나 추론해보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들이 성적인 억압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고, 성적 욕구가 억압당한 여성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정서적, 성적 관계를 내포할 수 있는 ‘혼외 관계’에 대해 더 수용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혼외성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그러나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은 보다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간과한 ‘성적 억압정도’의 조절효과를 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넷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정적 직접효과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혼외 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남성 집단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성별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 집단에서,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 경로의 유의하지 않게 나온 배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원인으로 통계적 유의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혼외 관계 수용성’ 경로의 유의도(P .054) 및 t값(1.925)의 수준은 통상 사회과학 연구에서 유의도 검증을 수용하는 기준(P .05; t값1.96)에 근소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효과도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연구모형 설계를 모색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정서적 관계(사랑) 및 성적 관계 가능성을 모두 내포한 ‘혼외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성위계적 성규범에 힘입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남성)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 허용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해석해 본다. 진술한 바와 같이 ‘성적 외도 실행의도’, ‘개방 결혼인식’과 함께, ‘혼외관계 수용성’ 수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았던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혼외 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행동과 관련 연구에는 성별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진술한 바와 같이, 본연구의 조사응답자들은 기혼자 뿐 만 아니라, 미혼자도 포함되어 있다. ‘결혼 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을 단순히 통제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 분석하여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래 동안 간통죄를 존치시켜 온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람들의 성적 외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 결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관련 요인들의 직·간접효과를 성별의 조절효과와 함께,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개척 연구로서의 도전과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1] 헌법재판소 2015. 02. 26. 2011헌가31 등 공보 221호
- [2]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의법학, 제45권, 제2호, pp.41-69, 2010.
- [3] 권혁남, “연구논문: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인문사회21, 제6권, 제3호, pp.223-239,

- 2015.
- [4] 함인희, “한국가족 내 부부간 성관계에 투영된 젠더 격차(Gender Gap),” 여성학논집, 제29권, pp.175-210, 2012.
- [5] 공미혜,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2호, pp.1-20, 2002.
- [6]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한국가족의 현주소*, 서울: 학지사, 2002
- [7] 이영숙, 이영화,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31-638, 2008.
- [8] E. Berscheid and B. Campbell, “The changing longevity of heterosexual close relationships,” In M. J. Lerner, et al.(Eds.)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pp.209-234, Springer US, 1981.
- [9] L. Richardson, *The new other woman*, New York, 1985.
- [10] D. L. Weis and M. Slosnerick, “Attitudes toward sexual and nonsexual extramarital involvements among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No.2, pp.349-358, 1981.
- [11]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0.
- [12] N. O’Neil and G. O’Neil, “Marriage: A contemporary Model,” In B. J Sadock, et al.(Eds.), *The sexual experience*. Baltimore: Williams & Wikins, 1976.
- [13] G. O’Neil and N. O’Neil, *Open Marriage: A new life style for couples*, New York: M. Evans, 1972.
- [14] 이영화, 이영숙,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pp.523-533, 2007.
-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16] 천주현,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17] 구명숙,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의 경험과 성적 주체성,” 여성연구논집, 제13권, pp.187-189, 2002.
- [18] 김예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1995.
- [19] 남은주,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0] 진요섭, “자유기고논문: 중년기 외도의 심리분석과 목회상담적 지원,” 한국개혁신학, 제12권, pp.339-366, 2002.
- [21] W. F. Harley,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Revell, 2011.
- [22] M. C. Green and J. Sabini,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ge, and jealousy: emo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in a national sample,” *Emotion*, Vol.6, No.2, pp.330-334, 2006.
- [23] 황재원, 허태근, 한성열, “질투심의 성차: 진화론적 가설에 대한 사회인지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9권, 제2호, pp.25-38, 2004.
- [24] 신성자, “혼전 성행위 경험과 성행위 결정양상 및 제 관련요인에 대한 성별 비교연구,” 지역정신보건 제9권, pp.177-199, 2006.
- [25] B. Thorne and M. Yalom, *Rethinking the Family, 페미니즘 가족론*, 권오주 외 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0.
- [26] 장필화,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제13권, 제2호, pp.41-76, 1997.
- [27] S. Hite, *Women as revolutionary agents of change: The Hite reports and beyond*,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4.
- [28] J. Weeks, *Sexuality and its discontents: Meanings, myths, and modern sexualities*, Routledge, 1985.
- [29] 김미숙, “일개 전문대학생들의 성 행동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5호, pp.252-258, 2010.
- [30] J. S. Hyde and M. C. Linn, *The psychology of gender: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Johns Hopkins Univ Pr, 1986.
- [31] 변주혜, *부부의 性연구: 외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2] T. W. Smith, "Attitudes toward sexual permissiveness: Trends, correlates, and behavioral connections," (Ed.) in *Sexuality across the life course*, pp.63-97, 1994.
- [33] A. Greeley, "Marital infidelity," *Society*, Vol.31, No.4, pp.9-13, 1994.
- [34] J. Treas and D. Giesen,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2, No.1, pp.48-60, 2000.
- [35] C. Liu, "A theory of marital sexual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2, No.2, pp.363-374, 2000.
- [36] L. Atwater, "Getting involved: Women's transition to first extramarital sex," *Alternative Lifestyles*, Vol.2, No.1, pp.33-68, 1979.
- [37] A. P. Thompson,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No.1, pp.35-42, 1984.
- [38] H. S. Feild,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6, No.2, pp.156-179, 1978.
- [39] 고려대학교부설 해동과학연구소 편, 심리척도 핸드북2, pp.39-40, 1999.
- [40] 이원준,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이 개인 기부자의 후원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250-270, 2015.
- [41] 이원준a,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가치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삶에 대한 감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66-178, 2016.
- [42]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s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445, 2002.

저 자 소 개

신 성 자(Sung-Ja Shin)

정회원



- 1989년 9월 : Portland State University, Social Work(석사)
- 1992년 9월 :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ial Work(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 성폭력문제, 노인복지